

3. 정의적 성화(DEFINITIVE SANCTIFICATION)의 과정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죄의 노예가 되어 죄를 자꾸 범하도록 만드는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술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아무리 술병을 깨뜨려 버려도, 술가게를 강제로 닫아도 않습니다. 술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술공장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타락한 자아)은 죄를 생산해내는 죄공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의 해방을 위해선 죄공장인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옛사람의 사형틀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나님은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의적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죄가 죽었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십니다.

옛사람이 죽으면 죄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죄의 두목인 사탄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천년왕국 후입니다(계 20:7, 10). 하나님은 그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는 도구로써 사탄을 그대로 존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정의적 성화의 과정은,

3.1. 앎(Knowledge)

롬 6:3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롬 6: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롬 6:9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앎이라.**

‘앎’ 에는 중요한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안에 이미 있다’ 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아담 안에 있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사람은 이미 예수안에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방안에 들어 있는 사람은 자꾸 방안에 들어 있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롬 6:3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롬 6: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둘째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박혔다’ 는 것이며, 이것은 미래에 될 일이 아니고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과거의 시제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롬 6: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누가 생각하길 나도 그대로요, 내옷도 그대로요, 이름도 그대로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출한 사람이 아직도 북한에 있는 환영에 시달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더러 새사람이라고 하셨으면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알아야 할 것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롬 6:9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아라.

3.2. 여 김

롬 6:10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

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

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

길지어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박힌 것을 알았을찌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반복해서 집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그 때마다 십자가에 못박혔다가 다시 부활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죄에 대하여는 예수님과 함께 못박혀 죽었으니, 나의 옛사람은 죽은 것으로 계속 여기라는 것입니다. 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아가 살아서---, 이 자아가 살아서----,’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칩니다. 이런 사람은 일평생 믿음이 깊어지질 않습니다.

한번 죽은 것은 영원히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죄를 반복해서 짓는가요? **그것은 옛사람의 죄의 습관입니다.**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으나, 우리는 너무 오랜동안 죄의 종살이를 해왔기 때문에, 종살이 하던 습관이 아직 남아 있어서 죄를 짓는 것이지 옛사람이 살아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은 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새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도 실제로 죽은 것입니다.

구한말에 천인(賤人, slave)들이 다 해방되어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되었는데, 옛날 상전을 만나면 아직도 습관이 남아 있어, 여전히 주인님! 혹은 도련님!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미 구시대의 모든 권세는 다 파괴되었습니다.

죄의 종살이를 하던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사람이 예수안에서 산 것을 믿는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도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죄를 또 다시 지었지만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라고.

믿고 여기는 것을 반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5:4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 진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성도의 행복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고후 5:4-5³).

3.3. 헌 신

롬 6:12-13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

**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헌신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병기는 그 제조된 목적에 따라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전쟁에 사용되어지기 위하여 만들어진 병기로 부엌에서 요리하는 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새로이 태어난 우리의 새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썩여질 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깊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병기가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드려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을 드립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로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산것으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즉 영의 새로운 것으로 드리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옛사람을 그대로 올려 놓읍니다. 옛생각, 옛습성, 옛버릇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서 “축복하옵소서, 주의 일을 하고 있으니 축복하옵소서.”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병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방패로도 쓰시고, 창으로도, 칼로도 씹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대로 그 사람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즉 은사를 주시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에 따라 봉사할 때 성령님은 30 배, 60 배, 100 배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II. 창조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성화된 삶

1. 정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1.1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갈라디아서 2 :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옛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옛사람)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새 사람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새사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새사람으로 사는 사람에게 있어선, 옛사람은 새사람에게 완전히 굴복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담대히 옛사람은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¹.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1.2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¹. 그러나 이것이 죄가 제거되었다는 의미가 될 수 없음은, 범죄할 가능성조차 없어졌다는 의미가 될 수 없음은 유의할 것. 왜냐하면 이렇게 성령의 지배하에 사는 사람도 자유의지가 있는 이상 죄를 질 가능성이 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5 :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갈라디아서 5 : 23 은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1.3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다.

또 바울 사도는 (타락한 첫사람 아담의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마지막 아담의 새사람을 은혜로 입고 사는) 기독교인들의 삶을, 다음과 같은 비유로서 깊은 계시를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 : 47 첫 사람(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흠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 : 48 무릇 흠에 속한 자는 저 흠에 속한 자들(첫 사람 아담의 후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둘째 아담 예수님의 후손들)과 같으니

고린도전서 15 : 49 우리가 흠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이 땅위에서 사는 동안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산다. 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 땅위에서 삶을 살아 가는 기독교인들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2. 창조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의 특징

창조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의 특징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1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 :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¹ *There is therefore now no condemnation to them which are in Christ Jesus,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but after the Spirit.*

² *For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in Christ Jesus hath made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KJV)*

우리 말 성경에서는 1 절에서,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but after the Spirit.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1 절의 바른 해석은

1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에서 육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가 됩니다.

우리가 육이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을 따라 행할 때는, **결코 율법과 죄에 의해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을 법적으로 의롭게되는 칭의와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것보다는,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을 따라 행할 때는, **결코 율법과 죄에 의해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2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 때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 : 4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을 따라 산다는 말은 사랑을 따라 사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랑을 따라 살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 성령과 마음에 새겨진 율법과 새사람의 삼각 관계

과거에는 죄와 옛사람과 율법이 삼각 관계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성령과 새사람과 마음에 새겨진 새로운 율법이 삼각 관계를 이룹니다.

에스겔 36 : 26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성령)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사람)

에스겔 36 : 27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마음에 새겨진 율법)

3.1 죄가 거하는 대신 성령이 거하신다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대치되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 : 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3.2 마음에 새겨진 신약의 율법

돌판에 새겨진 모세의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 있고 이제는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 : 33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3 예사람이 아닌 새사람

중생으로 말미암아 새로이 태어난 새사람, 속사람이 있습니다. 새사람은 죄와 모세의 율법과 관계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 : 23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에베소서 4 :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령과 마음에 새겨진 율법과 새사람의 삼각 관계 즉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을 때에는, 성령에 따라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인 거룩한 사람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4. 창조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의 지속을 위해선

에베소서 3 : 16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화된 삶의 주체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입니다.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입니다. 성화된 사람의 법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닌 마음에 새겨진 법입니다. 성화된 사람은 육체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삽니다.

이렇게 살 때 창조시의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됩니다.

창조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의 지속을 위해선 다음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영의 생각을 하라,’ ‘지속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입니다.

4.1 영의 생각을 하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시작됩니다.

로마서 8 : 5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 : 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 : 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 8 : 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영적 주권의 회복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나 하면 우리의 머리 속에는 통제되지 않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 생각을 하다가 조금 있으면 B 생각으로 C,D, E, F 생각으로 점프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생활의 시작은 이 생각의 주권을 찾아 자기가 자기 생각을 컨트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주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 : 1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엿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 : 2 위엿 것을 생각하고 땅엿 것을 생각지 말라
골로새서 3 : 3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이니라

4.2 몸의 행실을 죽여라

로마서 8 : 12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 : 13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 : 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써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살리니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것을 끊임없이 반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5 : 4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 진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도달하면 성령님이 앞에서 호위하시고 뒤에서도 호위하시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삶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5. 점진적 성화

옛사람이 죽고 육이 제거되는 것은 우리의 생애속에서 점진적으로 완성됩니다. 그 이유는 장성한 인격의
새사람이 되기까지는 자라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화를 마치면서 우리가 성화에 대하여 확실히 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1.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우리의 전인격이 변화해가는 성화,
여기에는 완성이 없다.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다.)

빌립보서 3 : 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2.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 죄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 여기엔 완성된 상태는 있으나 고정된 상태는 없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
